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김 인 숙*

1. 서 론

본 연구는 빈곤여성 특히, 생활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가 생활상의 사회적 환경요인(생활사건, 생활조건, 사회적 지지)과 어느정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양자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이들이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장세화,1987;안정선,1990;손덕수,1983), 이들 여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부적절한 상황임은 물론, 국내에 이들 여성의 부정적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디스트레스(distress)란 스트레스 과정의 부정적인 산물 특히, 지속적이고 불유쾌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의 결과를 말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정신건강 구조중 부정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Veit & Weir,1983), 생리적 신체상의 변화(예를들면,헉기증이나 손이 떨리고 땀이 나는 것, 수면장애 등)와 무드(mood)상의 변화(예를들면,약한 정신력,우울,불안 등)등의 불유쾌한 지각상태를 가리킨다(Thoits,1983).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DSMIII-R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임상적 진단범주에 속한 특정의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산물로서, 우울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정신건강의 負的(negative) 측면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개념이 사회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rinitzky,1990).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사업의 '상황속의 인간(person-in-situation)' 패러다임을 충족시키면서 특히 빈곤여성들의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설명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스트레스 모델(social stress model)'에 근거해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사회스트레스 모델은 빈곤계층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심한 주요 요인으로서 생활사건(life events), 생활조건(life condition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결여를 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상의 주요 사회적 환경요인인 생활사건,생활조건,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갖는 관계를 생활보호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의 방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스트레스 모델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정신분석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性役割的 접근, 사회역할적 접근-이 빈곤여성을 설명하는데 갖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의 이론적 틀로서 그 유용성을 갖는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생활사건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입장은, 생활에 제적응을 요하는 생활의 변화(change)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의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제반 증상과 관계가 있다는 관점이다. 생활사건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이들간에 正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생활사건의 어떤 하위영역과 유형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생활사건 접근은 생활속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적 스트레스인 '생활조건'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생활조건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특정의 생활조건 혹은 전체로서의 생활조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스트레스의 결과인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근원의 강도만을 가지고는 적절히 예측되기 어렵고, 개인이 가진 대처자원과 대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에 負的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갖는 역할 혹은 효과에 관한 연구들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와 '주효과(main effect)'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영향은 사전조사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 개념적 틀 및 가설의 설정

<연구문제 1> 빈곤여성의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 두 요인중 어느 요인이 이들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빈곤여성의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正의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빈곤여성의 생활사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생활조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연구문제 2> 빈곤여성의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의 하위요인중 어느 하위요인이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빈곤여성의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의 하위요인중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경제 및 건강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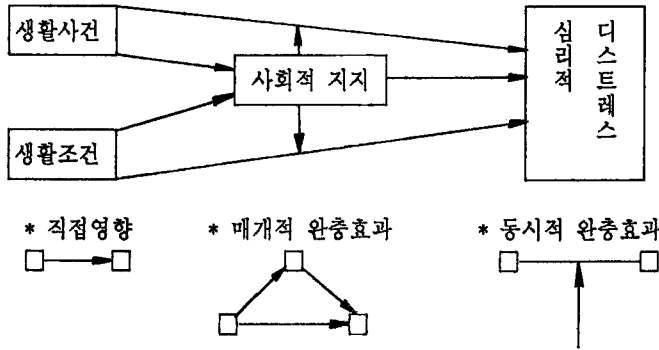
<연구문제 3>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지지의 어느 하위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負의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요인중 정서적 지지요인이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의 개념적 틀 >



주요 변수의 하위요인(요인분석 결과)

* 생활사건

1. 자녀의 학업문제
2. 실질소득의 감소
3. 대인간의 불화
4. 가까운 사람의 사망
5. 가족원의 입원

* 생활조건

1. 남편관련 문제
2. 사회적 지위 문제
3. 경제 및 건강문제
4. 가족원의 장애
5. 자녀관련 문제

* 사회적 지지

1. 정보적 지지
 2. 정서적 지지
 3. 물질적 지지
- * 근원: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종교인, 전문인

<연구문제 4>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가? 완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는가? 또한 이러한 완화방식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근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가설 4-1>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및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주어지면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상호작용적(동시적) 완충효과)

<가설 4-2>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및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과 상관없이, 생활사건 및 생활조건은 사회적 지지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증가는 이들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이다.(누가적(매개적) 완충효과)

4. 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및 표본선정

서베이 연구방법 사용. 예비적 현장조사를 통해(생보여성 및 사회복지사,빈민운동가와의 인터뷰) 생활사건,생활조건의 목록을 정교화함. 모집단:서울과 부천에 거주하면서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기혼여성(모자가족의 母 포함).

- * 서울과 부천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여성 120명
- * 서울과 부천의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여성 30명 * 총 150명.
- * 지역은 유의표집-->표집된 지역내에서 무작위 표집함.

2> 변수의 측정

1) 심리적 디스트레스:기존의 연구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측정지표로서 '우울'과 '불안'이 가장 많이 사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울'(Zung의 SDS 20 문항)과 '불안'(Spielberge)의 S.T.A.I중 trait anxiety에 해당하는 20 개 문항)을 측정지표로 함. 4-point likert scale.

2) 생활사건,생활조건:이평숙(1984)이 한국인에 적용될 수 있게 개발한 생활사건척도를 중심으로 여성과 관련이 없는 문항을 제외하고,외국에서 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한 Belle(1982)과 Krinitzky(1990)의 척도 그리고 현장조사(인터뷰 및 생활보호가구 600여 사례에 대한 생활기록 검토)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종 29개 문항:생활사건 13, 생활조건 16개 문항) 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의 분리는 150사례 모두의 개별 응답치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 * 생활사건:'생활상에 적응을 필요로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생활의 변화로서, 최근 12개월간 경험한 생활사건 항목에 대한 지각된 괴로움의 정도'
- * 생활조건:'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지속되면서(18개월 이상) 생활보호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괴로움의 정도' 5-point likert scale

3)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의 결함을 보완하고,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함.

3>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신뢰도: Cronbach's α (생활사건: .6877, 생활조건: .7145, 사회적 지지:.9767, 우울: .8786,불안: .9243)와 item analysis(생활사건과 생활조건의 일부 문항에서만 변별력이 1.0이하였고, 나머지 모든 척도의 모든 문항에서 변별력이 1.0 이상으로 나타남)를 사용.

2) 타당도: criterion-related validity의 하나인 concurrent validity를 사용(모든 척도에 대한 생보여성 과 중산층 여성의 응답차를 검증(t-test)한 결과 모든 척도의 동시적 타당도가 유의하게 나옴)생활사건,생활조건, 사회적 지지의 척도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제 5 장 연구의 결과

* <가설 1-1>의 검증(생활사건, 생활조건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正의 관계)

변		수	우 울	불 안
생 활 사 건	자녀의 학업문제		.2241*	.3171**
	실질소득의 감소		.0605	.1043
	대인간의 불화		.0967	.1187
	가까운 사람의 사망		.1147	.1796
	가족원의 입원		.0580	.0367
생활사건 전체			.2478*	.3383**
생 활 조 건	남편 관련 문제		.0823	.0344
	사회적 지위문제		.2427*	.3305**
	경제 및 건강문제		.2840**	.2895**
	가족원의 장애		.0426	.0203
	자녀 관련 문제		.1180	.0911
생활조건 전체			.3442**	.3425**

* p<.01 ** P<.001

* <가설 1-2>의 검증(생활조건이 생활사건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영향)

<생활사건, 생활조건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동시투입)

종속변수	우 울				불 안			
	B	Beta	T	SigT	B	Beta	T	SigT
생활사건	.8137	.1530	1.873	.0603	1.5629	.2546	3.218	.0016
생활조건	1.570	.2951	3.652	.0004	1.6005	.2607	3.296	.0012
상 수	50.7333			.0000	51.8733			.0000
F	11.9122(SigF=.0000)				15.6339(SigF=.0000)			
R ²	.13947				.17540			

* 생활조건은 전체 설명력의 84.95%(우울), 66.87%(불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 <가설 2>의 검증 (동시투입 중다회귀분석)

<생활사건, 생활조건의 하위요인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비교>

변 수	우 울				불 안			
	B	Beta	T	SigT	B	Beta	T	SigT
Fev1	1.0538	.0886	1.033	.3032	1.4639	.1795	2.185	.0305
Fev2	-.5239	-.0441	-.537	.5930	.1890	.0138	.175	.8611
Fev3	.2603	.0219	.272	.7863	.7571	.0552	.715	.4761
Fev4	1.6524	.1389	1.404	.1625	2.5031	.1823	1.924	.0564
Fev5	.2792	.0234	.291	.7712	.1999	.0146	.189	.8506
Fco1	1.7860	.1501	1.592	.1136	1.4327	.1044	1.155	.2501
Fco2	2.4611	.2069	2.479	.0144	3.4580	.2519	3.150	.0020
Fco3	2.7580	.2319	2.722	.0073	2.6243	.1912	2.342	.0206
Fco4	.7490	.0630	.740	.4605	.6887	.0502	.616	.5392
Fco5	1.5461	.1300	1.615	.1086	1.3249	.0965	1.251	.2129
상 수	50.7333 .0000				51.8733 .0000			
F	3.11455(SigF=.0000)				4.63731(SigF=.0000)			
R-square	.18305				.25016			

* <가설 3-1>의 검증(사회적지지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負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Pearson's r)>

변 수	우 울	불 안
정보적 지지	-.3275**	-.1548
정서적 지지	-.3981**	-.3394**
물질적 지지	-.3890**	-.3673**
전 체	-.6435**	-.4974**

* p<.01 ** p<.001

* <가설 3-2>의 검증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

--> 생활사건, 생활조건의 하위요인들을 통제(동시투입)

변 수	우 울				불 안			
	B	Beta	T	SigT	B	Beta	T	SigT
Fev1	.3662	.0308	.474	.6359	1.6927	.1233	1.724	.0871
Fev2	.5910	.0800	1.279	.2031	1.4933	.1088	1.578	.1168
Fev3	.2734	.0230	.379	.7051	.6647	.0484	.725	.4700
Fev4	.7779	.0654	.880	.3807	1.7683	.1288	1.571	.1184
Fev5	1.0181	.0856	1.418	.1586	.8346	.0608	.913	.3630
Fco1	1.2729	.1070	1.516	.1319	.9545	.0695	.893	.3733
Fco2	2.3128	.1944	3.076	.0025	3.1433	.2290	3.285	.0013
Fco3	2.5791	.2168	3.415	.0008	2.4822	.1808	2.583	.0108
Fco4	.3842	.0323	.498	.6190	.1683	.0123	.172	.8640
Fco5	.6034	.0507	.834	.4056	.3974	.0290	.432	.6665
Fsu1	-4.3234	-.3635	-6.088	.0000	-3.0824	-.2245	-3.432	.0008
Fsu2	-4.5666	-.3839	-6.469	.0000	-4.4791	-.3190	-4.784	.0000
Fsu3	-4.1103	-.3455	-5.714	.0000	-3.7956	-.2765	-4.201	.0000
상 수	50.7333			.0000	51.8733			.0000
F	13.10979(SigF=.0000)				8.93354(SigF=.0000)			
R ²	.55618				.46061			

* <가설 4-1>의 검증 (상호작용적(interactive) 완충효과, 동시적 완충효과)

<생활사건, 생활조건의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

변 수	우 울		불 안	
	B	Beta	B	Beta
생활사건	.96059**	.18057	1.66163**	.27063
생활조건	1.37068**	.25766	1.45305**	.23666
사회적지지	-4.46260**	-.64979	-3.82582**	-.48266
사건*지지	.24305	.08999	-.03379	-.01084
조건*지지	-.62918*	-.20971	-.51456*	-.14860
상 수	50.54474**		51.72279**	
F	37.18971**		21.65760	
R ²	.56357		.42922	

* p<.05 ** p<.01

---> 사회적 지지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보임

<각 집단(cell)의 평균 및 생활조건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1) 우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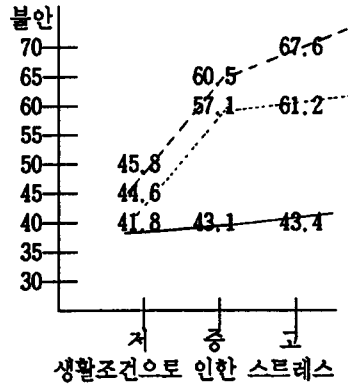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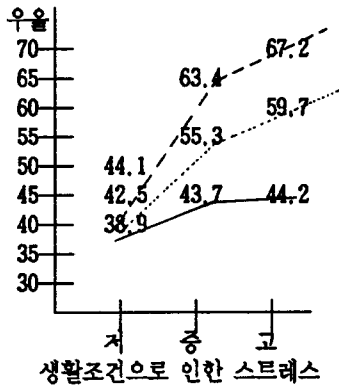
44.1	42.5	38.9	저 생활
63.4	55.3	43.7	중 조건
67.2	59.7	44.2	고

저 중 고
사회적 지지

2) 불안의 경우

45.8	44.6	41.8	저 생활
60.5	57.1	43.1	중 조건
67.6	61.2	43.4	고

저 중 고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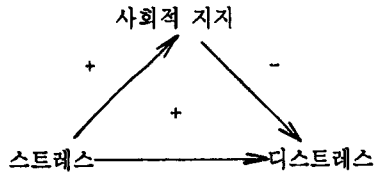


-->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수준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Scheffé test, $p < .05$),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모든 집단간 평균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입증됨. 이러한 결과는 지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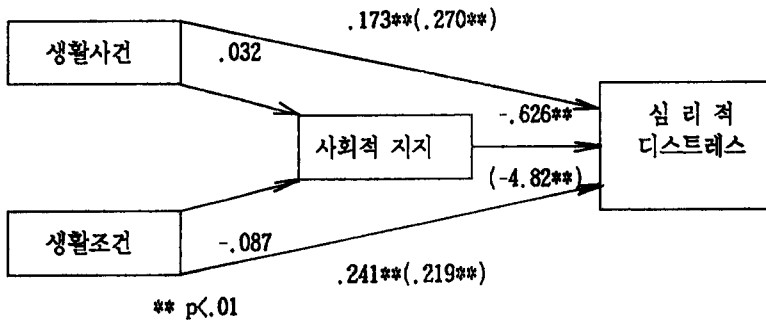
***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출처별(가족, 친척, 친구, 이웃, 종교인, 전문인)에 따른 상호작용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생활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우울의 경우에만) 나타났고, 지지의 근원(출처)에서는 친구로 부터의 지지만이 생활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에서만). 그리고 지지의 출처중 전문인으로 부터의 지지를 제외한 모든 지지유형과 지지 출처는 주효과(main effect)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생활보호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받는 대부분의 지지(전문인으로 부터의 지지는 제외)는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수준과 상관없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주효과), 이는 특히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정서적 지지와 친구로 부터의 지지가 충분히 주어지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사회복지 전문요원 포함),상담자 등과 같은 전문인으로 부터의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아무런 효과(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갖지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이들 생활보호여성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나 상담자 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평균:2.387,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도 유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설 4-2>의 검증 (누가적(additive) 혹은 매개적(mediating)완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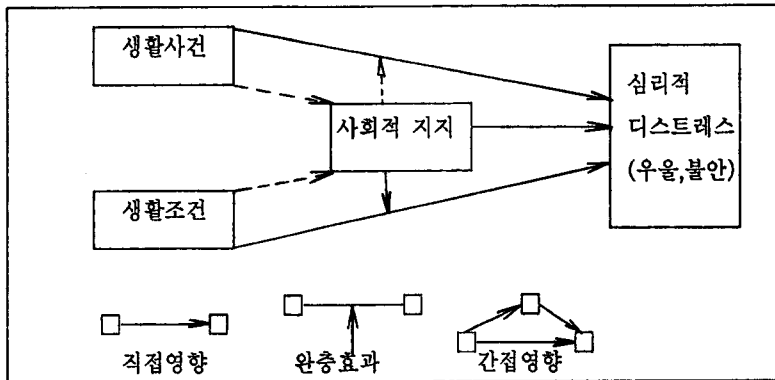
<누가적 혹은 매개적 완충효과 모델>



<가설 4-2>의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함. 경로분석결과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경로모형 및 그에 따른 경로계수는 다음과 같다. ()안의 수치는 불안의 경로계수임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4-2>는 생활사건과 관련해서만 사회적 지지가 매개적 위치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생활조건인 경우는 생활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과 불안 모두에서 생활사건-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서, <가설 4-2>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은 지지되지 않았다. 단지,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인과관계의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활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지지가 증가되고 이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가능성만을 보여주었다. 이상 앞에서 설정한 개념적 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의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다.



- * ————— 영향력이 유의함(Significant)
- * - - - - -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음(N.S)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패러다임의 '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념을 생활사건, 생활조건, 사회적 지지로 조작화하여 이들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빈곤여성 특히 생활보호대상 여성들이 처한 생활상의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들이 사회복지에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보호서비스를 받는 빈곤여성들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생활사건보다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생활조건에 더 많이 영향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여성과 관련하여 일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문제나 건강문제,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어떻게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생활사건과 관련해서는,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녀의 학업문제였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의 학업성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부방이나 학습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상담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빈곤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지지는 생활사건과 생활조건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생활보호 여성에게 주어지는 주변으로 부터의 제반 지지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네째,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보호여성에게는 반드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앞에서 검증된바 있는 상호작용효과를 통한 완충효과의 결과에 근거한다. 즉,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주어지면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거나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사회적 지지중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적인 생활조건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빈곤여성들에 대해, 이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방안과 전략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별로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생활보호여성이 현재 갖고 있는 친구의 지지망을 강화하거나 친구망을 확대하거나, 혹은 새로운 친구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실시의 실천적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출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인으로 부터의 지지가 이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 이들로 부터의 지지는 빈곤여성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보호서비스를 받는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클라이언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 나서야 할 것을(outreach services)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생활보호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을 찾아나서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 빈곤여성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이 처한 생활조건이나 생활사건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한 환경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여성의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치료하는데 있어 환경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의료모델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것 보다는 생활의 일시적,만성적 조건의 고려와 사회적 지지의 활용을 통한 환경중심적 접근이 더 유용한 접근이다.

‘어린시절의 경험보다 현재의 생활조건이 정신건강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함의는,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긍정적인 환경적 지지가 있으면,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만일, 이들 환경적 자원이 곧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 가족의 역사는 그 자녀에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Belle,1982:79).’라는 Belle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